

새한미디어, 기능성 필름 생산

2006년부터 디지털기기용 양산 돌입 ... 고강도 자구계획 지속

2000년 10월부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새한미디어가 독자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재조정을 비롯한 고강도 자구계획 이행과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월15일 발표했다.

새한미디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630억원 출자전환, 금리 3.5%로 하향조정, 2007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이끌어냈다.

또 회사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 자회사인 새한마텍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충주공장 사원주택 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해 약 500억원의 신규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새한미디어는 출자전환과 금리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원과 2004년 자구이행을 통해 마련한 금액을 포함 약 130억원을 2005년 신규사업인 리튬이온 양극활물질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4년 개발이 완료된 PDP 등 디지털기기에 사용되는 기능성필름 생산을 위해 2005년 말까지 기존 설비를 개조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양산에 계획이다.

새한미디어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IT소재사업으로 전환하고 2007년까지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5/03/17>